

검사가 복원한 수월 스님의 올곧은 삶



근세의 고승 수월 스님(1855~1928)의 행적을 좇은 책 <물 속을 걸어 가는 달>이 나왔다. 이 책은 지난 1996년 출간된 <달을 듣는 강물>의 개정판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수월 스님의 생애를 춘천지방검찰청 김진태 강령지정장(사진)이 고증, 복원한 것이다.

이번 책에서는 스님이 일제시대 초기 중국 푸먼(甯門)시와 만주, 러시아 등에서 소목이꾼으로 일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고 준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수월 스님은 근대 선행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스님의 제자로 만공·해월 스님과 더불어 '경허의 세 달'로 일컬어지던 고승이다. 그러나 스님의 고향이나 속성(俗姓)은 물론 그 행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73년 사찰에서 수월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김 지정장은 이때부터 수월 스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후 스님의 자취를 찾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내 도문시와 지리산 오대산 충남 홍성군 일대 등을 직접 답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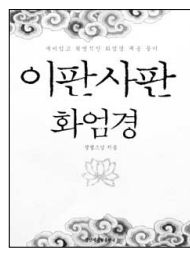
김 검사가 복원한 스님의 생애는 이렇다. 수월 스님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를 하다 스물 아홉 살에 충남 홍성 전장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천수다라니'를 지속적으로 암송하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평생을 스스로 노동해 얻은 곡식으로 밥을 짓고 집안을 삼아 중생들에게 베푸는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스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928년 여름안거를 마친 후 지리산 화엄사 옆 개울에서 정신을 머리에 얹고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다.

김 지정장은 "남을 위해 살다 간 수월 스님의 삶을 통해 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지음 학교재 | 1만원

한국불교 현주소, '화엄경'에 비추니...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지음 정신세계원출판국 1만1천원

"하나 가운데서 한량없음을 알고 한량없는 가운데서 하나를 알아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알면 마땅히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리라"는 '문수사리 보살의 계승'으로 우주 창조에 관한 '빅뱅(Big Bang)' 이론과 '프랙탈(Fractal,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도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터넷 불교 홈페이지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을 운영하는 성법 스님(용화사 주지)이 <화엄경>의 45개 계승을 쉽게 풀이한 <이판사판 화엄경>을 펴냈다. 이미 시중에 <화엄경>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음에도 성법 스님의 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무아(無我), 공(空), 일체

유심조(一切唯心造) 등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늘날의 사회와 불교계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딱다른 궁지'라는 뜻으로 쓰는 '이판사판(理判事判)'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이판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 각 장의 소제목인 '육심이 불심인 양 착각하지 말라' '종교가 상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나는 중이고 너는 신도라는 분별심도 버려라' 등에서 '이판사판'이 되어버린 한국불교계와 혼동에 빠진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세찬 죽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은 욕심으로 꼭 찬 욕계(欲界)에 머문,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형편없는 꼴찌"라고 지적하는 스님은 보시바라밀을 강조하는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기부에 인색하다거나, 법문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자랑삼는 현실을 꼬집는다. 또한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

법을 일컫는 '방편'이라는 말이 절의 시주금을 모으고 대형 불사를 일으키는 명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솔직히 신도들을 탓하기에 앞서 그들을 바른 불법의 세계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승가의 일원인 저도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천년 전 대승 불교 사상이 태동되었듯,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불교를 위한 또 다른 사상적 불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상이어야 한다고 정확히 제시할 수 없지만, 책에서는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펼쳐 보려고 했습니다."

책 끝 부분에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솔직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강경진 거사의 책 <영원한 대자유인>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존'에 연재됐던 글로, 스님은 "이 책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행의 경계까지 무시하고 냉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佛 문단의 찬사 쏟아진 한국인이 쓴 구도소설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 강은자(38·사진)씨의 데뷔작이자 '2003 부르그뉴 신인작가상'을 수상한 소설 <그 스님의 여자>가 한국어로 출간됐다. 원제가 '스님, 그리고 동사 직전의 여인(Le Bonze et la femme transie)'인 이 소설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간된 언론과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소설은 전형적인 '구도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후구직으로 스님 행세를 하던 주인공 '태만'이 동사(凍死) 직전의 한 여인을 통해 진정한 구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자칫 상투적일 수 있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갖는 매력은 적지 않다. 애써 꾸미지 않은 간결한 문체에서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주제가 선연히 드러난다. 프랑스 문단 역시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간단하고 직박한 단어를 사용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높이 사 강 씨를 '한국의 진주'로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남자 태만을 먹고 살기 위해 아내를 떠나 행운사로 향한다. 행운사에서 '봉(鳳)'이라는 범명을 받고 사찰의 주지를 맡게 된다. 신도들의 시주로 호의호식하던 태만은 어느 겨울, 길에 쓰러져 일어 죽게 된 여자를 살려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선택과 우연, 인연 그리고 내면의 불성(佛性)을 깨닫게 되는 그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불교 중류만' '있다르타 오 신날' 등의 오역이 글 읽기를 방해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스님의 여자 강은자 지음 | 해외달 |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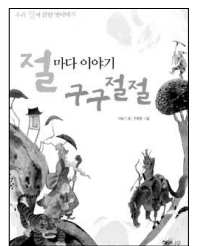
새로나온 어린이 불서 3권



손오공의 보물 천추스 글 | 짱관니엔·명사오팡 그림 | 원순 스님 옮김 | 법공양 | 8천원
행복해지는 겨울 이한중 글·그림 | 바우술 | 8천원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 이슬기 글 | 전병준 그림 | 해와나무 | 8천원



화를 잘 내거나,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는 아이에게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할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아자지기한 동화, 절에 얽힌 설화 등을 엮은 불교 어린이 책 세 권이 새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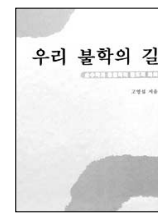
<손오공의 보물>은 대만 동화작가 천추스(陳處世)가 쓴 '어린이와 함께 보는 이야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어떻게 하면 화내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가르침을 받아 나쁜 성질을 고치고 마침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터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를 잘 내는 아이라면 손오공의 고민과 그 해결책에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는 겨울>은 깊은 산 속 암자에서 노스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자승의 이야기다. 어느 차가운 겨울날, 동자승은 '부처님께 하느님도, 달도, 별도 보여 드렸으면...'이라고 생각한다. 동자승의 잠직한 생각 덕분에 산새들, 동물들, 사람들과 모두 행복해지는 마법에 걸린다. 월간 <꿈나라>, <새소년> 편집장을 지내고 초·중·고 국어 교과서에 삽화를 그리는 이한중 씨가 겨울 산사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냈다. 동자승의 시선으로 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따뜻해진다.

불교 동화작가인 이슬기 씨는 보문사 신류사 내소사 낙산사 부석사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 여덟 군데에 얽힌 재미있는 설화를 골라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을 엮었다. 추운 겨울날 볼거리가 불씨를 구해와 스님들이 목숨을 구한 이야기(보문사)와 구렁이에게 물려 죽을 뻔한 절은이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난 이야기(신류사)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각 이야기 뒤에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침성대, 강화산성 등 절과 관련된 문화재와 유적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중도의 불학' 길을 내다



우리 불학의 길 고영성 지음 경유서적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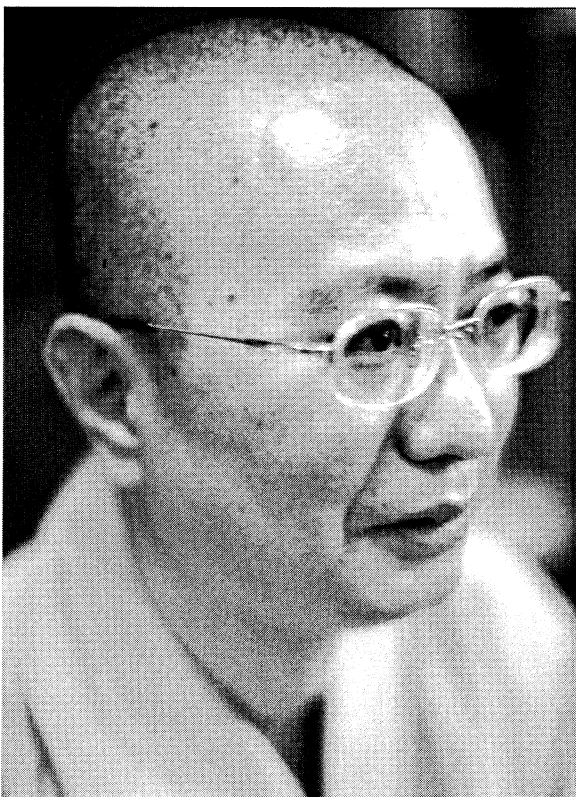
불교생태학, 불교심리학, 비교종교학... 하나의 틀 속에 갇혀 있던 학문들이 '불교'를 매개로 그 담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 불교학과 응용학의 조화와 융화인 '중도(中道)의 불학'을 추구해 온 동국대 고영성 교수(불교학과)가 그동안 학술지와 불교계 언론에 기고한 글 13편을 묶은 책 <우리 불학의 길>을 펴냈다.

최근 조계종 생명윤리위원회와 동국대 불교생태학 프로젝트에도 참가하고 있는 고 교수는 "불교가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현실 상황을 진단하고 그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불교학은 씨줄인 불학 및 순수학과 날줄인 불교학 및 응용학이 건강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 둘의 건강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중도의 불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의 현실고를 치유해줄 사상인 불교와 불학이 우리 사회의 주요담론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 교수는 그 내적 요인으로 불자들간에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상대방과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대화함으로써 불학과 불교학이 '중도 지혜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살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속속 들여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지화상을 나타내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욕'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해월도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정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비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꼭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1957년 태어나 중등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님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서 佛書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원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계승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문/값 11,000원/정신세계원출판국

이판사판(理判事判):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fax.02.747.7034

출간 2주 만에 교보 베스트 10 위권 진입(종교 부문)!